

한국어가 민족의 얼이 된 까닭은



《우리말의 탄생》

최경봉 지음 | 책과함께 | 392쪽 | 값 14,900원



《우리말의 탄생》은 1907년 대한제국의 국문연구소 설립부터 1957년 조선어학회의 후신인 한글학회의 《조선어 큰 사전》 총 6권의 완간에 이르기까지 50년에 걸친 사전 편찬사를 추적한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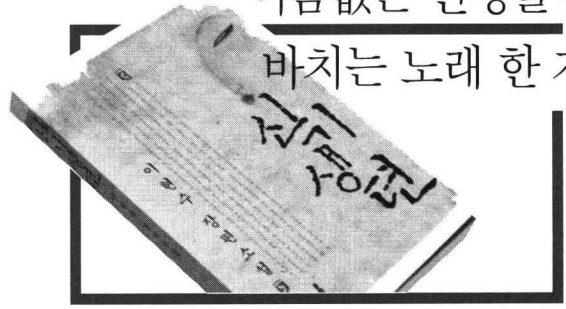
이 책이 흥미롭게 읽히는 이유는 ‘사전 만들기’가 우리나라의 근대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 때문이다. 국기나 국가, 학교와 마찬가지로 ‘규범화의 결정체’인 사전은 가장 근대적인 산물이다. 특히 국가체제를 유지발전하게 하는 원동력으로 모국어 문법서를 발간하고 모국어 사전을 편찬하는 일은 국가체제 규범화의 시작이면서 결과였던 셈이다.

서양과 같은 근대 민족국가를 만드는 것을 시대적 과제로 삼았던 개화세력은 언어를 통해 청나라와 양반세력이라는 기존의 지배질서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양반 귀족의 소통 도구였던 한문보다는 일반 대중의 소통 도구였던 한글을 공식문자로 삼음으로써, 새로운 생각과 가치관을 대중과 폭넓게 공유하고자 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근대화 과정은 또 다른 종속을 가져왔다. 한일 병합으로 우리말이 아니라 일본어가 새로운 소통의 도구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결국 서양의 근대화와는 다르게 사멸해가는 민족혼을 지키고자 하는 시대적 요청이 우리말 사전 편찬사업의 원동력이 되었다. 식민지 지배를 받던 시대, 조선어 규범화와 조선어 사전 편찬을 위한 일이 사회적으로 큰 호응을 받으며 시작될 수 있었던 데는 이처럼 ‘언어 민족주의’라는 이념의 힘이 크게 작용했다. 저자는 이러한 과정을 설명하면서 “우리말에 담긴 민족성이 두드러지게 강조되면서, ‘언어는 사회적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라는 생각보다는 ‘언어는 민족의 얼’이라는 생각이 일반적인 진리로 자리 잡았다”고 분석한다. 이 책은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온전한 우리말 사전이 나오기까지 평생을 사전 만들기에 바쳐온 사람들과 그들이 겪어야 했던 우여곡절을 다양한 문서와 사진 자료를 통해 파노라마처럼 펼쳐 보인다.

신동섭 기자

이름없는 인생들에게 바치는 노래 한 자락



《신기생단》

이현수 지음 | 문학동네 | 256쪽 | 값 9,000원



첨단의 21세기에 웬 기생타령인가...라는 말이 흘러나오려다 첫 장부터 살아 팔딱거리는 인물들의 기세에 홀린 듯이 빠져든다. 노랫가락처럼 흥겹고 맛깔스런 문장, 뛰어난 직관으로 삶의 편린들을 포착해내는 작가의 솜씨는 유서깊은 기방 ‘부용각’과 기생들의 애환을 손에 잡힐 듯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다.

늘 순소리로 내뱉는 타박이 그칠 줄 모르지만, 작은 몸에 걸맞지 않은 강단으로 부용각을 세파속에서 지켜내온 부엌어멈 타박네, 사랑없이는 못 사는 여인이지만 한없이 깊은 소리로 지친 사람을 품어주는 전통 기생 오마담, 주홍빛 능소화가 지던 날 홀린 듯 발을 들여놓은 뒤로 가슴에 품은 사랑을 묵묵히 지켜온 박기사, 너무 아까운 재주와 영특함을 지녔지만 단 한번의 사랑을 위해 꽃처럼 저간 채련 등, 부용각을 수놓는 다양한 인물들은 때론 화려한 웃음 속에 때론 회한깊은 눈물속에 등장한다.

철도 옆 앓은뱅이 집의 넷째 딸로 자란 미스 민. 굴비처럼 썩어 자던 세 언니들은 소리 잘하고 춤 잘추는 막내를 통해 꿈을 꾸었다. 시장 한 귀퉁이에서 수선일을 하며 보내준 국악원을 그만두고 기생이 된 미스 민은 늘 목이 맨다. “열두 개의 산과 열두 개의 들과 열두 개의 내를 건너 가면 언니들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

‘부용각’은 기생들의 애절하고 유서깊은 사연을 온 몸으로 품고 있는 이 소설의 진짜 주인공이다. 세월의 풍파를 견뎌내고 살아남으라고 천년이 지나도 변함없는 금강송을 찾아 만든 대들보와 기둥. 비바람을 맞고 자연건조시킨 춘양목으로 짜낸 마루와 난간. 늘 붉은 빛이 감돌고 솔향이 그윽한 부용각은 고단한 기생들의 삶을 위로하고 지탱해주는 고향이자, 이제는 사라져 볼 수 없는 옛 것들에 대한 향수가 느껴지는 곳이다.

작가는 자신의 소설을 통해 기생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맨발을 가만히 어루만진다. 이 땅에서 이름 없이 살다 간 많은 기생들이 차마 뱉지 못한 말들을 대신 옮겨주겠다노라며... 그 애정이 기생을 흘러간 퇴물로서가 아니라 이름을 가진 살아 있는 존재로 현재의 우리의 삶 속에 복원시킨다.

김지희 기자

중국 여성사 오롯이 증명하는 생생한 자료



《중국, 여성 그리고 역사》

진동원 지음 | 최수경, 송정화 옮김 | 박이정 | 574쪽 | 값 15,000원



여성권의 옹호를 외치는 요즘 논리로 보면 첫 장만 읽어도 개탄이 절로 나온다. 지금 시대, “미모가 쇠퇴하면 애정도 식고 버림받게 당연하다. 여자는 재주가 없는 게 덕이다(재주란 책을 읽고 글을 쓸 줄 아는 걸 의미)”란 말에 가만히 있을 여자가 몇이나 있겠나.

그러나 약 3천 년 간 종법(宗法) 조직으로 인해 사회 바깥으로 배제됐던 중국 여성들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런 소리를 듣고 살아왔다. 이처럼 뼈아픈 대접을 받은 중국 여성의 역사를 문학 자료 및 역사, 민속학 자료를 토대로 증언한 이 책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옛 도덕들이 그 이면에 얼마나 가식적인 논리를 숨겨놓고 있었는가를 고발하고 있다.

고대 여성의 삶부터 한나라, 송나라 그리고 유신시대 여성의 삶까지를 알리고 있는 책의 미덕은 유달리 생생한 자료들을 담보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 저자가 내세운 자료에 따르면 고대 중국의 부부에게는 은혜만 있고 사랑은 없다. 당시만 해도 남녀간의 관계 유지를 위해 아내는 늘 피동적이어야 한다는 말을 대놓고 할 수 있었다. “딸 만한 자식이 없다”는 요즘 사람들이 분개할 일화도 있다. <안씨가훈(顔氏家訓)>에선 “딸을 너무 많이 키우는 것은 낭비”라며 아이를 낳고 딸임을 알았을 때 버리거나 살해하는 일이 다반사였음을 기록하고 있다. 송나라로 건너오면 ‘손바닥 위에 놓고 봐야 할’ 전족이 본격 등장한다. 여성을 노리개감으로 여기는 남성 권위사회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전족문화는 적당히 충애 받고, 굴욕을 당해준다는 비하적 의미로 손바닥 위에 놓을 만큼 ‘작은 발 여성’을 미의 기준으로 여겼던 야만적 역사로 회자된다.

“옛날엔 이랬다”는 소리로만 들어왔던 역사적 사건들을 구체적인 역사자료 속에서 걸어 올리니 실감이 난다. 이미 80년 전에 책을 집필한 저자는 역사 자료 곁에 충실한 설명 및 시대별 성격 등을 삽입해 각 시대별 여성론 분석을 용이하게 했다. 저자가 원했던 바 여성들을 위한 지표는 이미 수립돼 있으니 우리가 할 것은 과거의 도덕체계가 얼마나 이중적이었는지를 인식하며 비판적 역사보기를 시도하는 일이겠다. 여성학 사료로서도 의미가 깊지만 일반 대중들이 교양서로 읽어둬도 충분히 재밌다.

김청연 기자

시대를 관통하는 세대 공통의 토픽, 문화부족을 해부하다



《문화부족의 사회, 히피에서 페인까지》

이동연 지음 | 책세상 | 350쪽 | 값 15,000원



1990년대 중반부터 청(소)년 하위문화에 관심을 가지며 저자가 해온 작업은 세대문화 연구. 이때부터 하위문화와 세대문화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시대를 향유하는 사람들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다. 이 책의 제목에 ‘문화부족’을 거론한 것도 여러 ‘족’들을 아울러 진화해온 현 소비 시대의 새로운 영웅들, 그리고 온라인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디지털부족들까지를 통칭하는 그들의 문화를 풀어가기 위해서다.

문화의 시대에 문화를 생산하고 소비하고 매개하며 소통하는 사람들은 어떤 욕망과 취향을 가지고 있을까? 동시대 문화 유행의 중심에 정박해 있는 세대들은 시대별로 어떤 문화 감수성을 내장하고 있을까? 국가대표 축구 서포터스 ‘붉은 악마’는 왜 치어리더들이 주도하는 야구와 농구 팬덤과 충돌하고, 서울 강남과 강북의 라이프스타일은 왜 다를까? 책은 문화의 생산과 소비, 매개와 소통, 유행 형식의 등장과 재생산, 마니아와 팬덤, 계급별 문화 취향의 구별과 같은 문화 현상을 가로지르는 공통의 토픽으로 문화부족에 대한 나름의 해석을 시도한다.

이어 저자는 끊임없이 자기어필을 시도하는 문화부족은 원시 공동체의 부족 발생 원리와 유사하다며 그 탄생과 함께 디지털 문화의 다양한 특징들을 정리한다. 인디문화의 메카 홍대문화, 나아가 청(소)년 문화를 바라보는 지탄의 시각, 과연 그것들은 퇴폐와 향락의 대명사인가? 히피와 보보스 등의 문화부족들, 프리타 firecta에서 몸짱, 페인 등 소비 시대를 영위하는 새로운 주체들까지에 이르는 포괄적 분석은 기존세대들의 이해영역을 벗어난 것임을 강조한다. 저자는 이러한 개별적인 문화 현상을 관통하는 용어로 ‘문화부족’이란 용어를 탄생시켰다.

중요한 것은 문화부족이 만들어내는 문화가 과연 무엇인지, 그것들의 다양한 실체가 무엇인지 그 내면을 살피려는 노력이다. 세대와 계급 사이에 놓인 장벽을 허물 때에야 비로소 문화는 사회 속에 통합될 수 있다. 이 책은 그러한 의미에서 상호 소통을 통한 하나의 시도이자 문화부족들의 문화가 사회 속에 통합되고 생산적 문화로 기능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홍이현 기자